

| 이슈페이퍼 2021-02 |

#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1.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구 목적
2.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선호
3.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특징과 연장보육 이용 현황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연구위원

## ◆◆ 요약 ◆◆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육아 가구 부모의 인지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며, 제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많았음.
-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대부분 17시 이전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 부모들은 현재 이용시간에 대해서 8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되었다는 응답은 20% 이하로, 제도 개편 전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 하원시각대별로 18시 이후 하원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도 개편 전후 단축된 비중은 4%내외에 그침.
- 기본보육시간(9:00~16:00) 이내에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및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연장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

###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구 목적

-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시행되었음.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7:30~19:30)으로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1)</sup>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 ◆ 기본보육시간은 9:00부터 16:00이며, 연장보육은 그 이후의 보육(16:00~19:30)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20: 76).
- 이와 같은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은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방지,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질 높은 보육을 제공, 아동과 교사, 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2)</sup>
- ◆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양분함에 따라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3)</sup>
- ◆ 2020년 변화된 보육지원체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음.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그림 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자료-문고 답하기(부모용).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 (인출일: 2021. 4. 20).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보육지원체제의 개편은 기본보육시간의 단축 혹은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을 의미하는 변화라 할 수 있음.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보육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 연장보육 서비스는 기존 종일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주로 맞벌이 가구,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단, 연장보육서비스 이용 자격은 기존 종일반 자격 기준에 비해서는 확대된 기준이 적용됨(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4)</sup>
- 이에 본고는 육아 가구 부모의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봄.
  -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년) 자료로서, 막내 자녀 연령이 초등 2학년(만8세) 이하인 가구 2,156가구를 대상으로 함.
  - ◆ 단,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 첫해인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 시점 및 어린이집에 따라 휴원, 긴급돌봄의 시행 등으로 정상적인 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률 자체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용 시간 자체도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2

### 개편된 보육지원체제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선호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60.9%에 그쳐,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보육지원체제 개편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 인식 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 연장보육시간 지원 등으로 이용에 큰 제약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제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 ◆ 총 자녀수에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자녀가 한명인 경우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가 51.4%로,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제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확실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았으며(초1 37.9%, 초2 33.2%), 영유아기 내에서도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인식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1〉 가구특성별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여부(2020년)

구분		인식함	인식하지 못함	단위: %(명) 계
전체		60.9	39.1	100.0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8	39.2	100.0 ( 960)
	외벌이	60.9	39.1	100.0 (1,196)
	$\chi^2$	0.000		
총 자녀수	1명	51.4	48.6	100.0 ( 725)
	2명	65.2	34.8	100.0 (1,125)
	3명 이상	67.0	33.0	100.0 ( 306)
	$\chi^2$	40.869***		
막내자녀연령	2020년생(0세)	51.9	48.1	100.0 ( 154)
	2019년생(1세)	58.5	41.5	100.0 ( 313)
	2018년생(2세)	70.2	29.8	100.0 ( 289)
	2017년생(3세)	84.6	15.4	100.0 ( 234)
	2016년생(4세)	75.2	24.8	100.0 ( 222)
	2015년생(5세)	70.5	29.5	100.0 ( 237)
	2014년생(6세)	62.6	37.4	100.0 ( 230)
	2013년생(초1, 7세)	37.9	62.1	100.0 ( 248)
	2012년생(초2, 8세)	33.2	66.8	100.0 ( 229)
$\chi^2$	229.17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0.

\*\*\*  $p < .001$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긍정적 37.0%, 매우 긍정적 15.4%였으며, 부정적 의견(부정적+매우 부정적)은 12.3%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음.
- ◆ 다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제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호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특징을 보임.
- ◆ 보육지원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점,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4.1점인 것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임(5점 만점)(최효미 외, 2020: 325).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맞벌이 가구들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과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는데 반해, 외벌이 가구는 중간 수준(부정적, 보통, 긍정적)에 보다 밀집된 형태의 분포를 보임.
- ◆ 반면,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단, 막내자녀 연령이 초등 학령기인 가구의 경우 평균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2〉 가구특성별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2020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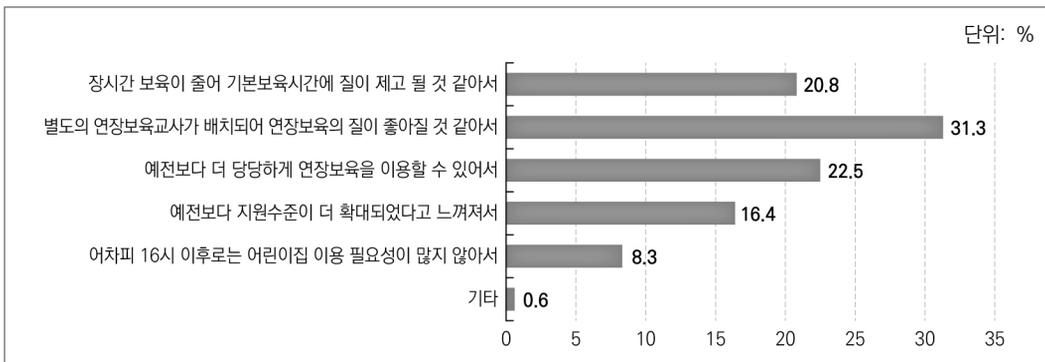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점수	계	
전체	2.8	9.5	35.4	37.0	15.4	3.5	100.0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	9.1	34.0	35.4	18.0	3.6	100.0 ( 960)
	외벌이	2.3	9.8	36.5	38.2	13.2	3.5	100.0 (1,196)
	$\chi^2/t$	13.548**				1.2		
총 자녀수	1명	2.8	9.1	36.0	39.2	13.0	3.5	100.0 ( 725)
	2명	2.4	9.5	34.9	36.4	16.7	3.6	100.0 (1,125)
	3명 이상	4.6	10.1	35.6	33.7	16.0	3.5	100.0 ( 306)
	$\chi^2/F$	10.508				1.4		
막내자녀 연령	2020년생(0세)	2.6	12.3	32.5	37.7	14.9	3.5	100.0 ( 154)
	2019년생(1세)	1.9	10.2	32.9	37.7	17.3	3.6	100.0 ( 313)
	2018년생(2세)	2.4	8.7	34.3	36.0	18.7	3.6	100.0 ( 289)
	2017년생(3세)	3.8	7.7	28.2	38.5	21.8	3.7	100.0 ( 234)
	2016년생(4세)	2.3	9.9	33.3	38.3	16.2	3.6	100.0 ( 222)
	2015년생(5세)	3.4	10.5	34.6	36.7	14.8	3.5	100.0 ( 237)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점수	계
2014년생(6세)	3.5	8.7	35.2	36.1	16.5	3.5	100.0 ( 230)
2013년생(초1, 7세)	3.2	7.7	45.2	34.7	9.3	3.4	100.0 ( 248)
2012년생(초2, 8세)	2.6	10.5	41.9	37.6	7.4	3.4	100.0 ( 229)
$\chi^2/F$						2.5*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1.

\*  $p < .05$ , \*\*  $p < .01$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긍정적이라고 본 경우(긍정적+매우 긍정적)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별도의 연장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연장보육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22.5%)’, ‘장시간 보육이 줄어 기본보육시간에 질이 제고될 것 같아서(20.8%)’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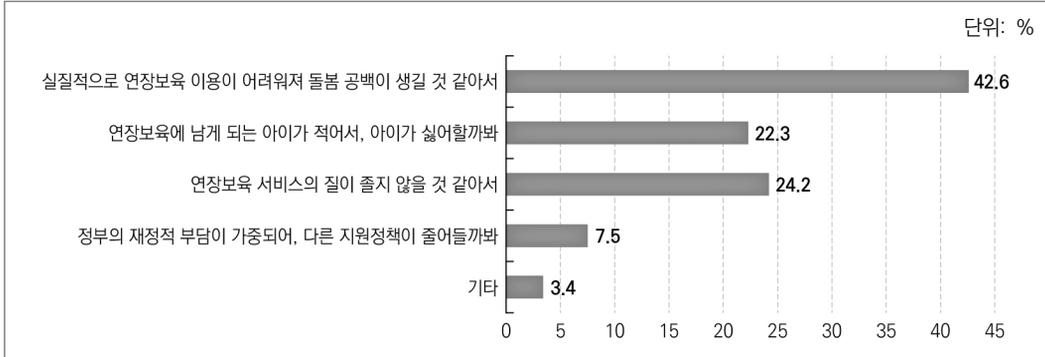


주: 전체 1,128가구 대상 응답 결과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2.

[그림 2] 보육지원체계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20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부정적이라고 본 경우(부정적+매우 부정적)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져 돌봄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24.2%)’, ‘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22.3%)’ 순이었음.



주: 전체 265가구 대상 응답 결과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4.

[그림 3] 보육지원체제 변화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2020년)

### 3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특징과 연장보육 이용 현황

#### 가.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

-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은 전년에 비해 약간 길어진 것으로 조사됨.
  - ◆ 2020년(3차년도 조사) 기준 만1세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은 32.2시간, 만2세 37.1시간, 만3세 37.7시간, 만4세 37.5시간, 만5세 38.0시간, 만6세 38.4시간임.
  - ◆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 보고서(최효미 외, 2020)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함.
  - ◆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나,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은 다소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을 단시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정내 돌봄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표 3〉 연령별 및 연도별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2018~2020년)

단위 : %(명)

	1차(2018년)	2차(2019년)	3차(2020년)
만0세	40.8 ( 3)	42.2 ( 3)	48.5 ( 3)
만1세	35.0 ( 94)	33.8 ( 70)	35.2 ( 57)
만2세	34.5 (283)	35.1 (266)	37.1 (227)
만3세	34.4 (348)	35.1 (355)	37.7 (315)
만4세	35.2 (190)	35.8 (254)	37.5 (221)
만5세	35.9 (125)	36.6 (160)	38.0 (180)
만6세	35.5 (120)	36.0 (128)	38.4 (137)

주: 1) 1, 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 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이므로, 주의를 요함.

2) 연령은 생활연령 기준의 만나이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됨.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0~141, 158.

- 가구 특성별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주당 영아 5.1시간, 유아 4.1시간가량 김.
  - ◆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길다고는 하나, 영유아 모두 주당 평균 39.9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데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구간에 모가 취업 중인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 ◆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자의 주당 이용시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37.3	(603)	37.9	(5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9 (288)	39.9 (270)	
	외벌이	34.8 (314)	35.8 (268)	
	<i>t</i>	8.2***	6.3***	

	구분	영아		유아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8	( 37)	38.0	( 36)
	300~399만원 이하	35.1	(114)	36.0	(109)
	400~499만원 이하	36.8	(189)	37.1	(157)
	500~599만원 이하	38.2	(106)	39.0	(108)
	600만원 이상	39.3	(156)	39.5	(128)
	<i>F</i>	6.4***		3.9**	
총 재녀수	1명	37.1	(129)	37.9	( 80)
	2명	37.2	(362)	37.6	(324)
	3명 이상	37.6	(111)	38.7	(133)
	<i>F</i>	0.1		1.0	
지역 규모	대도시	36.6	(235)	37.2	(210)
	중소도시	37.4	(267)	38.2	(243)
	읍면지역	38.4	(101)	38.7	( 85)
	<i>F</i>	1.8		1.5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1, 159~160.

\*\*  $p < .01$ , \*\*\*  $p < .001$ .

- 영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시 전후 등원하여 16시 전후에 하원 하는 경우가 38.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시 전후 등원하여 17시에 하원 하는 경우가 15.5%임.
  - ◆ 등원 시각을 기준으로 10시 등원이 가장 많았으며, 9시, 11시 순임.
  - ◆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는 기본보육시간 종료시각인 16시 하원이 가장 많고, 연장보육 시간 시작 전(연장보육 준비시간)에 해당하는 17시 하원 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아, 대부분의 영아가 연장보육 시작 전에 하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18시 이후에 하원 하는 영아의 비중은 15.9%에 그침.

〈표 5〉 영아의 등원시간별 어린이집 하원시간(2020년)

단위 : %, (명)

등원 \ 하원	8:00	9:00	10:00	11:00	12:00	13:00	(수)
12:00	0.0	0.0	0.8	0.0	0.0	0.0	( 5)
13:00	0.0	0.2	1.5	0.6	0.0	0.0	( 14)
14:00	0.0	0.1	1.0	0.2	0.0	0.0	( 8)
15:00	0.0	0.7	6.2	1.6	0.2	0.0	( 52)
16:00	0.0	5.0	38.5	6.4	0.2	0.0	(301)
17:00	0.0	4.4	15.5	1.4	0.0	0.0	(127)
18:00	0.2	4.5	6.1	0.9	0.0	0.2	( 71)
19:00	0.6	1.0	1.2	0.2	0.0	0.0	( 18)
20:00	0.0	0.5	0.5	0.0	0.0	0.0	( 6)
(수)	( 5)	( 98)	(428)	( 67)	( 2)	( 1)	(60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30분을 기준으로 반올림된 시각대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42.

- 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아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 유아의 경우에도 등원 시각을 기준으로 10시 등원이 가장 많았으며,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 는 기본보육시간 종료시각인 16시 하원이 가장 많고, 연장보육시간 시작 전(연장보육 준비시간)에 해당하는 17시 하원 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음.
  - ◆ 18시 이후에 하원 하는 유아의 비중은 16.3%로 영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 ◆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시점(16:00)과 연장보육시간이 시작되는 시점(17:00) 사이는 하원지도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기는 하나, 17시에 하원하는 유아의 비중이 26.0%에 달함.

〈표 6〉 유아의 등원시간별 어린이집 하원시간(2020년)

단위 : %, (명)

등원 \ 하원	8:00	9:00	10:00	11:00	12:00	(수)
12:00	0.0	0.0	0.4	0.0	0.0	( 2)
13:00	0.0	0.0	1.3	0.0	0.0	( 7)
14:00	0.0	0.2	0.7	0.2	0.0	( 6)
15:00	0.4	0.6	4.8	1.8	0.0	( 40)

하원 \ 등원	8:00	9:00	10:00	11:00	12:00	(수)
16:00	0.2	5.2	36.1	6.0	0.0	(253)
17:00	0.0	5.9	17.7	2.4	0.0	(138)
18:00	0.2	4.0	6.2	1.0	0.0	( 61)
19:00	0.2	2.7	0.8	0.2	0.0	( 21)
20:00	0.0	0.2	0.2	0.2	0.0	( 3)
21:00	0.0	0.0	0.0	0.0	0.4	( 2)
(수)	( 5)	(100)	(363)	( 62)	( 2)	(53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30분을 기준으로 반올림된 시각대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0.

- 한편, 영유아가 이용하는 이용기관별로 이용 시간 확대/축소에 관한 의견으로 ‘지금 수준 적당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임.
  - ◆ 이용기관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은 현재보다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어린이집 12.7%, 유치원 12.8%, 반일제 이상 학원 17.5%임.
  - ◆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조금 늘리고 싶다(12.7%), 많이 늘리고 싶다(2.5%), 조금 줄이고 싶다(1.9%), 많이 줄이고 싶다(0.4%) 순이었음.
  - ◆ ‘지금 이용하는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82.5%로, 유치원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에 비해 높았음.

〈표 7〉 이용 기관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2020년)

단위 : %(명)

구분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지금 적당함	조금 줄이고 싶음	많이 줄이고 싶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3.1	12.8	81.8	2.0	0.2	0.1	100.0 (1,716)
이용 기관	어린이집	2.5	12.7	82.5	1.9	0.4	100.0 (1,140)
	유치원	4.6	12.8	80.8	1.8	0.0	100.0 ( 551)
	반일제 이상 학원	0.0	17.5	73.9	8.6	0.0	100.0 ( 24)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5.

### 나.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시간 변화

- 가구특성별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가구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약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변동 없다는 응답이 63.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지만, 관측치가 25가구로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400~499만원 하인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10.2%)는 응답과 증가하였다(11.2%)가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가구소득이 300~399만원 이하인 가구와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된 경우에 비해 높음.
  - ◆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보육시간변동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6.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8〉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맞벌이 가구 여부	전체	10.2	82.8	6.9	100.0 (437)
	맞벌이	9.4	83.1	7.5	100.0 (217)
	외벌이	11.1	82.6	6.4	100.0 (220)
	$\chi^2$		0.4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6	63.2	20.3	100.0 ( 25)
	300~399만원 이하	12.1	84.2	3.7	100.0 ( 83)
	400~499만원 이하	10.2	78.5	11.2	100.0 (128)
	500~599만원 이하	7.9	85.7	6.4	100.0 ( 79)
	600만원 이상	9.2	88.5	2.3	100.0 (123)
	$\chi^2$		17.977*		
총 자녀수	1명	12.5	78.5	9.0	100.0 ( 89)
	2명	10.6	82.6	6.8	100.0 (269)
	3명 이상	6.5	88.4	5.1	100.0 ( 79)
	$\chi^2$		3.064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지역 규모	대도시	6.0	84.3	9.6	100.0 (161)
	중소도시	11.2	84.8	4.0	100.0 (200)
	읍면지역	16.6	74.6	8.8	100.0 ( 76)
$\chi^2$		11.75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4.

\*  $p < .05$

■ 한편, 유아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동이 맞벌이 가구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 ◆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변동 없다’는 응답이 낮은 반면, 단축되었다는 응답과 증가하였다는 응답 둘 다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 맞벌이 가구 유아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8.5%)는 응답이 증가하였다(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함.
- ◆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22.3%)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단, 관측치가 32 가구에 불과하므로 주의를 요함.

〈표 9〉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0	83.5	6.5	100.0 (49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5	87.8	3.7	100.0 (257)
	외벌이	11.7	78.9	9.5	100.0 (239)
	$\chi^2$	8.5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	74.6	22.3	100.0 ( 32)
	300~399만원 이하	12.5	79.8	7.7	100.0 ( 93)
	400~499만원 이하	7.7	88.9	3.4	100.0 (149)
	500~599만원 이하	15.3	77.0	7.6	100.0 ( 99)
	600만원 이상	8.4	87.3	4.3	100.0 (121)
	$\chi^2$	22.794**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총 자녀수	1명	6.8	82.1	11.1	100.0 ( 76)
	2명	11.7	82.1	6.3	100.0 (300)
	3명 이상	8.0	87.8	4.2	100.0 (119)
	$\chi^2$		5.284		
지역 규모	대도시	11.7	82.5	5.8	100.0 (193)
	중소도시	9.5	82.7	7.7	100.0 (224)
	읍면지역	7.3	87.9	4.9	100.0 ( 79)
	$\chi^2$		2.279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3.

\*  $p < .05$ , \*\*  $p < .01$

-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2020년 2월 29일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던 경우,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2020년 3월 1일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이 변화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변화 없다는 응답이 82.8%로 매우 높음.
  -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로 모두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영아는 72.5%로, 2020년 3월 이후 새롭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영아는 주로 만2세 이하의 연령에 밀집됨.
  -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0.2%, 증가했다는 응답은 6.9%로,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높음.
  - ◆ 연령별로 관측치가 매우 적은 만1세 이하를 차치하고, 만2세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8.2%)이 단축되었다는 응답(7.6%)에 비해 약간 높음.
  - ◆ 반면, 만3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 변동 전후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11.0%)는 응답이 증가하였다(5.8%)에 비해 높았음.

〈표 10〉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2월2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 여부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여부			
	네	아니오	계	단축 되었음	변동 없음	증가 하였음	계
전체	72.5	27.5	100.0 (603)	10.2	82.8	6.9	100.0 (437)
2020년생(0세)	30.6	69.4	100.0 ( 3)	0.0	100.0	0.0	100.0 ( 1)
2019년생(1세)	31.0	69.0	100.0 ( 57)	20.1	64.7	15.2	100.0 ( 18)
2018년생(2세)	62.0	38.0	100.0 (227)	7.6	84.2	8.2	100.0 (141)
2017년생(3세)	87.9	12.1	100.0 (315)	11.0	83.3	5.8	100.0 (27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3.

■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전(2020년 2월 29일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아의 경우에도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후(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이 변화 없다는 응답이 83.5%에 달함.

- ◆ 보육지원체제 개편 전후로 모두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유아는 92.1%로, 대부분의 유아들은 만4세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함을 알 수 있음.
- ◆ 2020년 3월 이후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0.0%, 증가했다는 응답은 6.5%로, 영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연령별로 만4세는 단축과 증가 비중이 비슷한 반면, 만5세와 만6세의 경우에는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1〉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전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2월 2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여부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여부			
	네	아니오	모름	계	단축 되었음	변동 없음	증가 하였음	계
전체	92.1	7.7	0.2	100.0 (538)	10.0	83.5	6.5	100.0 (495)
2016년생(4세)	93.3	6.7	0.0	100.0 (221)	7.2	85.0	7.8	100.0 (206)
2015년생(5세)	91.4	8.0	0.6	100.0 (180)	13.1	80.0	6.8	100.0 (164)
2014년생(6세)	91.1	8.9	0.0	100.0 (137)	10.6	85.5	4.0	100.0 (124)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2.

- 영아의 어린이집 하원시각대별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동을 살펴본 결과, 16시 이전에 하원 하는 경우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6.5%로 높고, 18시 이후 하원 하는 경우에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9.4%로 높음.
- ◆ 현재 하원 시각대를 기준으로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18시 이후 하원 영아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 전후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86.7%로 높게 나타남.
- ◆ 하원 시각대별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12〉 하원시각대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2	82.8	6.9	100.0 (437)	
하원 시간별	16:00 전	16.5	78.6	4.9	100.0 ( 43)
	16:00	10.9	83.0	6.1	100.0 (213)
	17:00	11.0	81.2	7.8	100.0 (101)
	18:00 후	4.0	86.7	9.4	100.0 ( 78)
	$\chi^2$		6.390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5.

- 유아의 어린이집 하원시각대별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동을 살펴본 결과 또한 영아와 경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 18시 이후에 하원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기본보육시간 변동 전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11.1%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해서는 이전보다 더 긴 시간 기관 이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임.
- ◆ 다만, 하원 시각대별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13〉 어린이집 하원시간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하원 시간별	16:00 전	12.4	83.4	4.2	100.0 ( 48)
	16:00	11.3	82.9	5.8	100.0 (232)
	17:00	10.9	84.2	4.9	100.0 (132)
	18:00 후	3.9	85.0	11.1	100.0 ( 76)
$\chi^2$		7.16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3.

## 4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기본보육시간 준수 노력 필요.
  - ◆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16시와 연장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는 시각인 17시 사이는 하원 지도 시간으로 운영됨. 즉, 연장보육을 받는 영유아는 16시 이후부터 연장보육 서비스를 받게 됨.
  - ◆ 17시 하원 비중은 영아 21.3%, 유아 26.0%이며, 18시 이후 하원 비중은 영아 15.9%, 유아 16.3%임. 즉,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하원이 완료되는 비중은 영아 62.8%, 유아 57.7%에 그침.
  - ◆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기본보육시간이 지난 후에 하원 하는 영유아가 많아, 담임교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상쇄될 뿐 아니라 현장의 혼선(하원지도와 연장보육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됨)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 또, 연장보육료 지원은 17시 이후 30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0: 350~351), 실질적으로 기본보육시간이 16시가 아닌 17시에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 가능한 기본보육시간 이내에서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연장보육료 지원 기준 시간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예산 및 인력의 원활한 지원
  -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제약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대다수의 부모들이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음.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시 이후 하원 영유아 비중은 15% 내외로 많지 않은 수준임. 즉,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장시간 기관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많지 않음.
  - ◆ 분석에 활용된 동 자료에서 전체 응답자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4.5%(최효미 외, 2020: 78)로,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조차 18시 이전에 하원지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경우 ‘실질적인 연장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음.
  - ◆ 본고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가 18시 이전에 하원 하는 명확한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지점임.
  - ◆ 한편, 기본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함.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은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임. 연장보육 서비스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 검토 및 입소대기 시스템 연계
  - ◆ 장시간 기관 이용자(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집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이에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입소대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의 조치 시행.

- ◆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은 기존의 거점형 어린이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연장보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 특히, 영유아들이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에 해당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님.
- ◆ 영유아 부모들이 입소 당시 연장보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인지하기 쉽도록 입소대기 시스템 등에서 구분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하나임.
- ◆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화 어린이집 중심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모이게 되면, 혼자 남는 영유아가 줄어들어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입장에서 규모 경제로 인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 참고 문헌 I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자료-묻고 답하기(부모용).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 (인출일: 2021. 4. 2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안내.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Ⅲ). 육아정책연구소.